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만족도가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류 은 진¹⁾ · 최 소 은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은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이 취업 가능성이나 고등학교 내신 성적 위주로 이루어지고, 학업과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간호직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된다[1]. 간호교육은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간호직의 고유한 특성,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을 쌓고 그 결과로 미래의 간호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이다[2].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직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태도, 가치, 지식, 신념 및 기술의 집합으로 다른 전문직 집단으로부터 차별화하는 것이며[3] 전문직 역량을 위한 기술, 지식, 가치 이외에 자신의 직업을 바라보는 태도이다[4].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주로 학부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추후 간호사로서 전문적인 간호를 가능하게 한다[3].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미확립은 취업 후 간호사, 환자, 의료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기 이직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5]. 전 세계의 간호 교육자들은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문직 정체성은 임상실습을 통해 형성되었으며[6] 임상실습 경험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7]. 또한 전문직 정체성은 임상실습현장에서 경험하는 역할 모호성을 감소시켰다[8]. 이론과 임상실습을 통해 형성된 전문직 정체성[6]은 추후 간호사로서 실무경력을 쌓으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전문직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9]. 따라서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적인 간호 수행에 대한 자부심 향상과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간호인력의 미래인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습태도, 지식과 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도전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학업성취를 위해 정진하도록 유도한다[10]. 간호대학생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간호사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자신감 향상을 위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전제되어야 한다[1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12]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았으며[13]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11].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14,15]. 하지만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은 1년간 취업 과정을 거치며 임상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16]. 간호대학생은 전문직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적절한 의학적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과실 경향을 감소시키는 데 필수적이다[16].

주요어 : 전문직 정체성, 간호대학생, 만족도, 자기효능감

* 본 연구는 2021년도 송원대학교 교내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A2021-13)

1)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https://orcid.org/0000-0003-0958-8501>)

2)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https://orcid.org/0000-0003-4805-3446>) (교신저자 E-mail: seami@mokpo.ac.kr)

투고일: 2022년 1월 3일 수정일: 2022년 1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3일

전공만족도는 전공교과를 학습하면서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를 의미하며 전공학과에 대한 적성이나 흥미, 진로에 대한 기준과 같은 특성이 일치할수록 전공만족도는 높아진다[17]. 간호학과는 타 학과에 비해 전공 관련 교과목이 많고, 과중한 학습량과 임상실습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8]. 간호대학생들이 전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학습은 물론 취업 준비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졸업 후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1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인식이 높고 [20] 직업정체성이 향상되었다[21].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13] 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낮았다[17].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전문적인 직업 의식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22]. 또한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긍정적인 전문직관 형성을 방해한다[19].

임상실습교육은 학습된 지식을 간호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교육으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현장을 체험하며 이해하고 이론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통합하는 가치를 갖는다 [23]. 간호대학생의 낮은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가치관과 직업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졸업 후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친다[2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높았으며 [7], 현장실습에서 간호사 역할 이행수준이 높았다[24]. 또한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게 생각하였으며 [13]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도 높았다[21].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 현실충격, 수동적 대처, 부당함 등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저하되거나 미래 간호사로서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5].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수행이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직 정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여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향상을 위한 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 및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5 중간효과크기 0.15, 예측변수 10개로 산정 결과 최소 표본수는 172명이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00명을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개의 대학교는 학생의 규모 및 교육과정이 유사하였으며, A 대학에서 100명, B 대학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20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하여 총 18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 성적, 학과 만족도, 대인관계, 건강 상태 총 7문항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과 만족도는 “귀하의 학과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제시한 후 ‘만족한다(1점)’, ‘보통이다(2점)’, ‘만족하지 못한다(3점)’로 측정하였다. 대인관계는 “귀하의 대인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제시한 후 ‘좋음(1점)’, ‘보통(2점)’, ‘나쁨(3점)’으로 측정하였다. 건강 상태는 “귀하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제시한 후 ‘건강하다

(1점), ‘보통이다(2점)’, ‘건강하지 않다(3점)’로 측정하였다.

● 전문직 정체성

전문직 정체성은 Hall [4]과 Snizek [25]의 도구를 Kim [26]의 연구에서 간호사에게 맞는 어휘로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자율성에 대한 신념 4문항, 서비스에 대한 신념 3문항,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6문항, 준거로서의 전문조직 활동 4문항 4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26]연구에서 Cronbach's $\alpha=.75$ 이었다. 본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 이었다.

●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 [10]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과제 난이도 선호 10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Park [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3$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3$ 이었다.

●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Kim과 Ha [27]의 34개 문항 중 Lee [28]가 전공만족 관련 18개 문항을 추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문의 구성은 일반만족 6개 문항, 사회인식만족 6개 문항, 교과만족 3개 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Ha [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이었고, Lee [2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 이었다. 본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 이었다.

●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Cho와 Kang [23]이 개발한 도구를 Lee 등 [29]이 수정·보완한 31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문의 구성은 실습교과 3문항,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2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 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8월 2일부터 2021년 8월 20일까지이었다. 연구자가 기관에 방문하여 학과장에게 설문 동의를 받은 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응답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하고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종료 3년 후에 모두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이었고, 작성된 설문지는 개별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가 밀봉한 봉투를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마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전문직 정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Shapiro-Wilk test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한 후,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전문직 정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M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았다(MNUIRB-2100603-SB-007-01). 연구의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시행된다는 것과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암호화하여 익명성을 준수하였고, 연구종료 후 자료는 3년간 보관하며 이후 관련서류는 분쇄·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의 차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8±2.47세이며, 여학생이 162명(90.0%)

이었다. 3학년이 102명(56.7%), 4학년이 78명(43.3%)이었으며, 학과 만족도는 ‘높다’는 학생이 79명(43.9%), 대인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90명(50.0%),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92명(51.1%)이었다.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은 학업성적이 높거나, 중간정도인 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10.57, p<.001$). 학과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은 학과 만족도가 중간이거나 낮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13.88, p<.001$). 또한 대인관계가 ‘좋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전문직 정체성이 유의하게 높았다($F=11.03, p<.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이 ‘보통’이거나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9.05, p<.001$)(Table 1).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은 5점 만점 중 평균 3.81 ± 0.56 점이었으며, 하부요인으로 자율성 3.88 ± 0.62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에 대한 신념 3.87 ± 0.68 점, 소명의식 3.84 ± 0.61 점, 전문직 활동 3.70 ± 0.62 점 순이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 중 평균 3.49 ± 0.52 점이었으며 하부요인으로 자기조절 효능감 3.73 ± 0.59 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신감 3.41 ± 0.71 점, 과제 난이도 선호 3.31 ± 0.60 점 순이었다.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92 ± 0.59 점이었으며 하부요인으로 사회인식만족 4.13 ± 0.66 점

로 가장 높았고,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82 ± 0.72 점, 일반만족 3.82 ± 0.68 점, 교과만족 3.81 ± 0.68 점 순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71 ± 0.48 점이었으며 하부요인으로 실습교과가 3.89 ± 0.63 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습평가 3.86 ± 0.62 점, 실습지도 3.78 ± 0.58 점, 실습환경 3.78 ± 0.56 점, 실습시간 3.67 ± 0.66 점, 실습내용 3.36 ± 0.45 점 순이었다(Table 2).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

전문직 정체성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69, p<.001$), 전공만족도($r=.72, p<.001$), 임상실습 만족도($r=.71, p<.001$)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r=.61, p<.001$), 임상실습 만족도($r=.58,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는 임상실습 만족도($r=.72,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단변량 분석에서 전문직 정체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업성적, 학과 만족도, 대인관계, 건강상태를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만족도를 추가 투입하여서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Table 1〉 Professional Ident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0)

Variables	Categories	n (%) or Mean±SD	Mean±SD	t or F (p)
Age (year)		21.8±2.47		
Gender	Male	18 (10.0)	3.78±0.61	-0.29 (.772)
	Female	162 (90.0)	3.82±0.55	
Grade	3rd	102 (56.7)	3.80±0.53	-0.26 (.792)
	4th	78 (43.3)	3.83±0.60	
Academic grade [†]	4.0≤ ^a	39 (21.7)	4.05±0.52	10.57 (<.001) a,b>c
	3.0-3.9 ^b	116 (64.4)	3.82±0.54	
	2.9≥ ^c	25 (13.9)	3.42±0.48	
Department satisfaction [†]	High ^a	79 (43.9)	4.03±0.51	13.88 (<.001) a>b,c
	Middle ^b	93 (51.7)	3.68±0.54	
	Low ^c	8 (4.4)	3.27±0.38	
Interpersonal relation [†]	Good ^a	90 (50.0)	4.00±0.56	11.03 (<.001) a>b
	Usually ^b	88 (48.9)	3.63±0.49	
	Bad ^c	2 (1.1)	3.47±0.66	
Subjective health status [†]	Healthy ^a	92 (51.1)	3.98±0.54	9.05 (<.001) a>b,c
	Usually ^b	78 (43.3)	3.66±0.52	
	Not healthy ^c	10 (5.6)	3.49±0.58	

[†]Scheffé test.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 중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72로 높아 단변량 분석에서 설명력이 더 높은 임상실습 만족도를 선택하고 전공만족도는 제외하였다. 공차한계는 0.58~0.86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19~1.71로 기준인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선형성의 가정도 모두 만족하였으며 자기상관성 검증에서 Durbin-Watson 통계량이 1.816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의 최댓값도 0.101로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로 성적, 학과 만족도, 대인관계,

건강상태를 투입한 결과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beta=-.23, p=.006$), 학과 만족도가 낮은 학생($\beta=-.20, p=.003$)과 중간인 학생($\beta=-.17, p=.028$)이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설명력은 24%이었다. 2단계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만족도를 추가 투입한 결과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beta=.42, p<.001$)와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38, p<.001$)이었으며 총 설명력은 66% 이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와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Table 2〉 Means of Professional Identity,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180)

Variables	Mean±SD	Min	Max	Range
Professional identity	3.81±0.56	2.52	5.0	
Autonomy	3.88±0.62	2.75	5.0	
Belief in public service	3.87±0.68	2.00	5.0	1-5
Sense of vocation	3.84±0.61	2.50	5.0	
Professional activity	3.70±0.62	2.00	5.0	
Academic self-efficacy	3.49±0.52	2.46	4.9	
Self-regulated efficacy	3.73±0.59	2.30	5.0	
Confidence	3.41±0.71	1.25	5.0	1-5
Task difficulty	3.31±0.60	2.10	5.0	
Major satisfaction	3.92±0.59	2.27	5.0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4.13±0.66	2.00	5.0	
Relationship satisfaction	3.82±0.72	2.00	5.0	1-5
General satisfaction	3.82±0.68	1.00	5.0	
Curriculum satisfaction	3.81±0.68	2.00	5.0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3.71±0.48	2.45	4.93	
Subject of practice	3.89±0.63	2.00	5.00	
Evaluation of practice	3.86±0.62	2.00	5.00	
Instruction of practice	3.78±0.58	2.11	5.00	1-5
Environments of practice	3.78±0.56	2.42	5.00	
Time of practice	3.67±0.66	1.00	5.00	
Contents of practice	3.36±0.45	2.00	5.00	

〈Table 3〉 Correla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180)

Variables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Professional identity
	r (p)	r (p)	r (p)	r (p)
Academic self-efficacy	1			
Major satisfaction	.61 (<.001)	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58 (<.001)	.72 (<.001)	1	
Professional identity	.69 (<.001)	.72 (<.001)	.71 (<.001)	1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전문직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은 3.81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 중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7]의 3.63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3] 본 연구 대상자는 체계적인 이론과 임상실습으로 인한 전문성과 자신감으로 전문직 정체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하부요인으로 자율성이 높고 전문직 활동이 낮게 나타났다. 자율성은 업무 수행 시 외부적인 압력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4]으로 교육과정을 통해 예비 간호사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 함양으로 자율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직 활동은 간호 관련 학술대회 참여나 간행물 구독 등에 관심이 적고[30] 임상실습 중 무례함을 경험함으로써 역할 갈등이나 자존감이 저하되어[5]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은 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발달하므로[3,9] 교수자는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통해 전문직 정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임상실습기관 지도자는 실습 중 학생들이 무례함을 경험하지 않을 실습환경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 중 전문직 정체성 영향요인은 학업성적, 학과 만족도, 대인관계,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학과성적이 중·상위권 성적에 해당하는 간호대학생은 스스로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직업적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켜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현장에서 간호사 역할이행 정도가 높았으며[24] 좋은 대인관계는 대학 생활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21].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 정체성 향상을 위해 성적과 학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수자의 학습전략이 필요하며, 학습자는 학업성취와 원활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과 참여가 필요하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Identity

(N=180)

Model	Variables	B	SE	β	t	ρ	R ²	Adj R ²	F (ρ)
1	Academic grade [†]						.24	.20	6.81
	3.0-3.9	-0.14	.09	-.12	-1.57	.118			(<.001)
	2.9≥	-0.38	.13	-.23	-2.73	.006			
	Department satisfaction [†]								
	Middle	-0.19	.08	-.17	-2.22	.028			
	Low	-0.56	.19	-.20	-2.93	.003			
	Interpersonal relations [†]								
	Usually	-0.14	.09	-.13	-1.51	.132			
	Bad	-0.24	.38	-.04	-0.63	.527			
	Subjective health status [†]								
Usually	-0.16	.09	-.14	-1.77	.078				
Not healthy	-0.22	.18	-.09	-1.19	.236				
2	Academic self-efficacy	0.41	.06	.38	6.70	<.001	.66	.64	32.83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0.50	.06	.42	7.53	<.001			(<.001)
	Academic grade [†]								
	3.0-3.9	-0.06	.06	-.05	-0.95	.342			
	2.9≥	-0.11	.09	-.07	-1.24	.215			
	Department satisfaction [†]								
	Middle	-0.04	.06	-.04	-0.81	.420			
	Low	-0.11	.13	-.04	-0.89	.375			
	Interpersonal relations [†]								
	Usually	-0.03	.06	-.03	-0.58	.562			
	Bad	-0.25	.25	-.04	-0.97	.331			
	Subjective health status [†]								
	Usually	-0.09	.06	-.08	-1.50	.134			
Not healthy	-0.22	.12	-.09	-1.76	.081				

[†]Dummy variable reference was Academic grade (4.0≤), Department satisfaction (high), Interpersonal relations (good),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49점으로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Whang [11]의 3.09점,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Bong [14]의 3.17점, Ko [12]의 3.14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학업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14]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부요인으로 자기조절 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과제 난이도 선호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상황에 성실하게 계획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은 높으나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과제는 회피하게 된다는 선행연구[11, 14]의 결과와 같다. 학업과정에서 성공이나 실패는 학생에게 가장 자랑스럽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학생에게 가장 핵심적인 경험[15]이 된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쉬운 과제에서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성취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킨다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공만족도는 3.92점으로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Kim [21]의 3.66점,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Kang [17]의 3.80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이 4학년의 경우 취업 성공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 자긍심, 애착심과 직결되어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부요인별로는 사회인식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교과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Whang [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사회인식만족은 본인의 미래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20,21] 청년 실업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높은 취업률과 직업의 안전성으로 간호학과에 대해 자랑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인식만족이 증가할수록 직업정체성이 높아졌으며[21], 간호사에 대한 인식만족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대한 만족도나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9]. 따라서 사회인식만족을 고취시켜 전공 공부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 등을 마련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만족은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간호학과에 진학했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간호학과 전공 과정은 쉽지 않아[11] 교과만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은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간호전문직관[20]이나 직업정체성이 낮으며[21] 취업 스트레스는 높았다[17]. 따라서 교수자는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상태 점검과 학업의 어려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3.71점으로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한 Han [24]의 3.41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Kim [21]의 3.42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3학년은 수업과 임상실습의 병행, 4학년은 수업, 취업 및 국가시험 준비 등과 병행하면서 임상실습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해 임상실습이 중단되었다가 개시되는

시점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심리가 작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부요인별로 실습교과가 가장 높았고, 실습내용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9]의 결과와 같다. 실습교과는 이론교육 후 임상실습이 이루어져 이론 지식과 실무를 통합하는 과정[21,23]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실습내용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정해진 실습시간에 학생이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직접 간호 수행이 최소화되고 단순하고 기능적인 간호수행과 관찰 위주[21]의 제한적인 실습내용 때문으로 사료된다. Sun 등[8]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현장에서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현장지도자는 실습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심으로 책임감 있는 현장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과 병원간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질적인 임상실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리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 정체성과 임상실습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7]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결과[13,15]와 같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21]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향상을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총 66%였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가 전문직 정체성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연구[7] 결과와 같으며 임상실습 만족도가 직업정체성 요인으로 확인된 연구[21] 결과와 유사하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은 미래의 직업적 현실을 경험하고 이 현실을 이론 및 학문적 수업에서 배웠던 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6]. 또한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역할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전문직 정체성 확립이었다[5].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지도자가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적 노력이 필요하며, 교수자는 실습내용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 임상실습 시간만을 고수하기보다 시뮬레이션 실습[21]이나 가상현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연구[13]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정진하는 것으로[10]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은 전문직에 대한 자아개념 정립과 가치를 인식함으로써[13] 결국엔 전문직 정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간호학과 교과과정 중 3학년은 전공교과목의 비중이 커지며 4학년은 취업 준비를 병행해야 하므로[11]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 과제 난이도 선호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 수준별 교육 전략을 모색하고, 학생이 스스로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간호사 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규간호사 적응 등을 고려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임상실습 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확대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의 전문직 정체성 정도를 파악하고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전문직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전략을 모색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임상실습이 중단되었다 개시되는 시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영향요인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영향 변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 중 성적, 학과 만족도, 대인관계, 건강상태에 따라 전문직 정체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총 6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성적, 학과 만족도, 대인관계,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만족도를 강화시켜 주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전문직 정체성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

1. Son HM, Hong YK, Kim YH. Career exploration process of nursing student in clinical practice: A voyage to find the authentic nurse of pre-registratio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9;25(1):69-82. <http://dx.doi.org/10.5977/jkasne.2019.25.1.69>
2. Cruess RL, Cruess SR, Boudreau JD, Snell L, Steinert Y. Reframing medical education to support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Academic Medicine*. 2014;89(11):1446-1451. <http://doi.org/10.1097/ACM.0000000000000427>
3. Haghghat S, Borhani F, Ranjbar H. Is there a relationship between moral competencies and the forma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BMC Nursing*. 2020; 19(1):1-7. <https://doi.org/10.1186/s12912-020-00440-y>
4. Hall RH. Profession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68;92-104.
5. Kang JE, Jeong YJ, Kong KR. Threats to identity: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student nurses' experience of incivility during clinical placement. *Journal Korean Academy Nursing*. 2018;48(1): 85-95. <https://doi.org/10.4040/jkan.2018.48.1.85>
6. Marañón AA, Pera MPI. Theory and practice in the construc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a qualitative study. *Nurse Education Today*. 2015;35(7):859-863. <http://doi.org/10.1016/j.nedt.2015.03.014>
7. Wu C, Palmer MH, Sha, K. Professional identity and its influencing factors of first-year post-associate degree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Nurse Education Today*. 2020;84:104227. <https://doi.org/10.1016/j.nedt.2019.104227>
8. Sun L, Gao Y, Yang J, Zang XY, Wang YG. The impact of professional identity on role stress in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16;63:1-8. <http://doi.org/10.1016/j.ijnurstu.2016.08.010>
9. Çöplü M, Tekinsoy Kartın P.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professional values of senior students of the nursing department. *Nursing Ethics*. 2018;26(5):1387-1397. <https://doi.org/10.1177/0969733018761171>
10. Kim AY, Park IY.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001;39(1): 95-123.
11. Whang SA.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ollege student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2021;9(2):73-85. <https://doi.org/10.17333/JKSSN.2021.9.2.73>
12. Ko MS.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Health Communication*. 2019;14(2):85-92. <http://doi.org/10.15715/kjhcom.2019.14.2.85>
13. Yang KM.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ajor satisfaction

- among nursing students: The medit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9;9(8): 455-466.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8.040>
14. Lee ES, Bong EJ.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7;23(2):107-114. <https://doi.org/10.14370/jewnr.2017.23.2.107>
 15. Kim JY, Kim HO, Lee MH.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academic self-efficacy: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9;25(2):205-213. <https://doi.org/10.4094/chnr.2019.25.2.205>
 16. Baykal D, Yildirim D. Investigating the effect of personality traits and academic self-efficacies on malpractice tendencies in health college students. *Nigerian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2020;23(12):1721-1727. https://doi.org/10.4103/njcp.njcp_677_19
 17. Kim KN, Kang EH.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ppearance satisfaction in major on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0;21(3):80-88. <https://doi.org/10.5762/KAIS.2020.21.3.80>
 18. Kim EY, Kim YS, Lee SB, Kim YJ, Lee JS, & Shin KY. Comparison of academic stress, social support, and major satisfac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other college students. 2018 Winter Conference; 2018 December 14;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8. p. 63.
 19. Barron D, West E, Reeves R.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Policy*. 2007;12(1):46-51. <https://doi.org/10.1258/135581907780318419>
 20. Choi HJ.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6):68-77. <https://doi.org/10.5762/KAIS.2017.18.6.68>
 21. Lee MR, Kim MJ.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6):197-208. <https://doi.org/10.5762/KAIS.2018.19.6.197>
 22. Lim JH.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nursing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ego-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majo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16(4):2273-2284.
 23. Cho KJ, Kang HS.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84;14(2):63-74.
 24. Han MR.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lacement and role transi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0;21(11):171-179. <https://doi.org/10.5762/KAIS.2020.21.11.171>
 25. Snizek WE. Hall's Professionalism scale : An empirical re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72;3:109-114.
 26. Kim MJ.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ident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perating room.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13.
 27. Kim KH,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0;1(1):7-20.
 28. Lee DJ.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4.
 29. Lee SH, Kim SY, Kim JA.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4;10(2):219-231.
 30. Choi SI, Sung MH. Relationships among professional identity,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emergency department(E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6):3725-3733. <https://doi.org/10.5762/KAIS.2014.15.6.3725>

Impac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Ryu, Eun Jin¹⁾ · Choi, So Eun²⁾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ongwon University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Purpose: Establishing a professional identity is important for nurses in providing quality nursing care and adapting to changing roles in various clinical setting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their professional identity. **Methods:** A total of 180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using convenience sampling from a university in G city in July, 2021. **Results:** The professional identity scores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and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nurses' academic grade, department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Professional identit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elf-efficacy ($r=.69, p<.001$), major satisfaction ($r=.72, p<.001$),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71, p<.001$). The factors affecting professional identity wer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eta=.42, p<.001$) and academic self-efficacy ($\beta=.38, p<.001$). **Conclusion:** Our finding suggest that nursing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develop their professional identity by improv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nursing education programs that increase their pride as nurses and establish their professionalism in nursing.

Key words : Professional identity; Nursing; Satisfaction; Self-efficacy; Students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Songwon University in 2021. (No. A2021-13)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So-Eun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1666 Yeongsan-ro, Chenggye-myeon, Muan-gun, Jeollanam-do, Korea 58554

Tel: +82-61-450-2672, Fax: +82-61-450-2679, E-mail: seami@mokpo.ac.kr